



박선호 Sunho Park

주로 개인의 사적 기억이나 구술 기록과 같은 미시사에서 거시사로 진입하는 구조의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와 매체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당장 가져다 놓았을 때 상대적으로 낡아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실용적이거나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유용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주로 이런 것들에 눈길이 가거나 마음이 쓰인다. 낡아버렸기에 어딘가에서 분리, 털락, 배제된 경험이 있는 것들. 외톨이의 입장에 놓여본 것들. 이런 것들에서 되레 물려받을 수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교훈들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업부터 매체(영상)를 정해 두지는 않는다. 주제의 경우도 미리 설정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나의 작업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오래 고민한 시간을 관객에게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끌어올려 말해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생각이 드는 이야기나 ‘뭐지?’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한다. 이번 전시에 소개한 *‘결혼 이야기: 호킹’*과 *‘진주와 혁스테이블 가족’*이 각각 전자와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후 이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연결된 이야기를 찾는 시간을 가진다. 자연스레 내가 선택한 것들이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에서도 연결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관객이 나와 다른 이의 경험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 시각, 청각을 다루는 영상이 선택되었다.



어머니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결혼 이야기: 호킹’*은 OHP 필름에 쓰인 텍스트, 그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영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결혼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 그 대신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그 대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유사하다. 그때 해결했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화면 안에서 적중되는 텍스트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의 상보적인 관계와 같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가 작품의 주제나 의미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결혼 이야기: 호킹’*을 2020년에 제작했다. 이 시기의 나는 일하고 살아가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했다.(기혼 여성뿐 아니라 모두가 무엇인가를 포기해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보편적인 상황에 진입하는 일에 집중했다). 생활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평소 어머니에게 들어오던 시시하고 뻔한 이야기들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다.

그러나 작업을 구체화할 때는 조금 다른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다. ‘차이를 드러내는 일’과 ‘무엇과 무엇을 공존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이 영상 작업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작업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작업을 이루는 코어이지만, 이 이야기 외에 작가인 내가 개입해 원가를 해야만 이야기가 ‘작가의 작품’의 영역으로 비로소 이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작가의 작품이라는 아주 사적인 문화 생산물이지만, 그 속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이야기와 인상이 함께 유지되길 바랐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머니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 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 여러 날에 걸쳐 애심 차게 연습했으나 결국 청자에게 어색하게 다가오는 나의 이상한 경상도 사투리가 그것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목소리는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접속이 되는 관람객이 있다면, 그분도 이 작업의 주인공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진주와 혁스테이블 가족’, *‘혁스테이블 가족 3: 사랑의 시간’*, *‘진주와 혁스테이블 가족’*은 동일한 이미지가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진 문화적 생산물로 활용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기획팀은 해당 작업으로부터 여성, 그리고 여성의 사랑과 연애에 관한 상투적 이미지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되는 것에 주목했다. 이번 전시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해당 작품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측면이 생겼다면?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작 당시에는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작품을 제작할 때는 상이한 맥락에 놓인 문화 생산물 속에 동일한 이미지가 담겨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차이를 얼마만큼 인식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살펴보게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지의 표면과 맥락 사이 어디에서 방황하는지 질문하고 싶었다.

이번 전시에서 좋은 기회로 나의 의도와 다른 통로로 해석될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다. 나는 이미지를 둘러싼 구조와 유통방식, 변화한 환경, 이미지들의 연결망 등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기획팀에서는 이미지 내부의 것들로부터 뻗어나가는 이야기들을 발견해준 것 같다. 1층에 놓인 다른 작업들과 나의 작업이 함께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심어진 환상 같은 매끄러움이 나의 작업이 포함한 이미지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진주와 혁스테이블 가족: 이미지> 속 'Naturally Classic Yours'라는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타고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심어지거나 이식된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올해 하반기에 '컬렉션(collection)'과 '아카이브(archive)'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을 다루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의 나의 작업에서는 동기와 방법론이 두드러졌지만, 이번 전시를 위한 작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보는 경험을 중요하게 다뤄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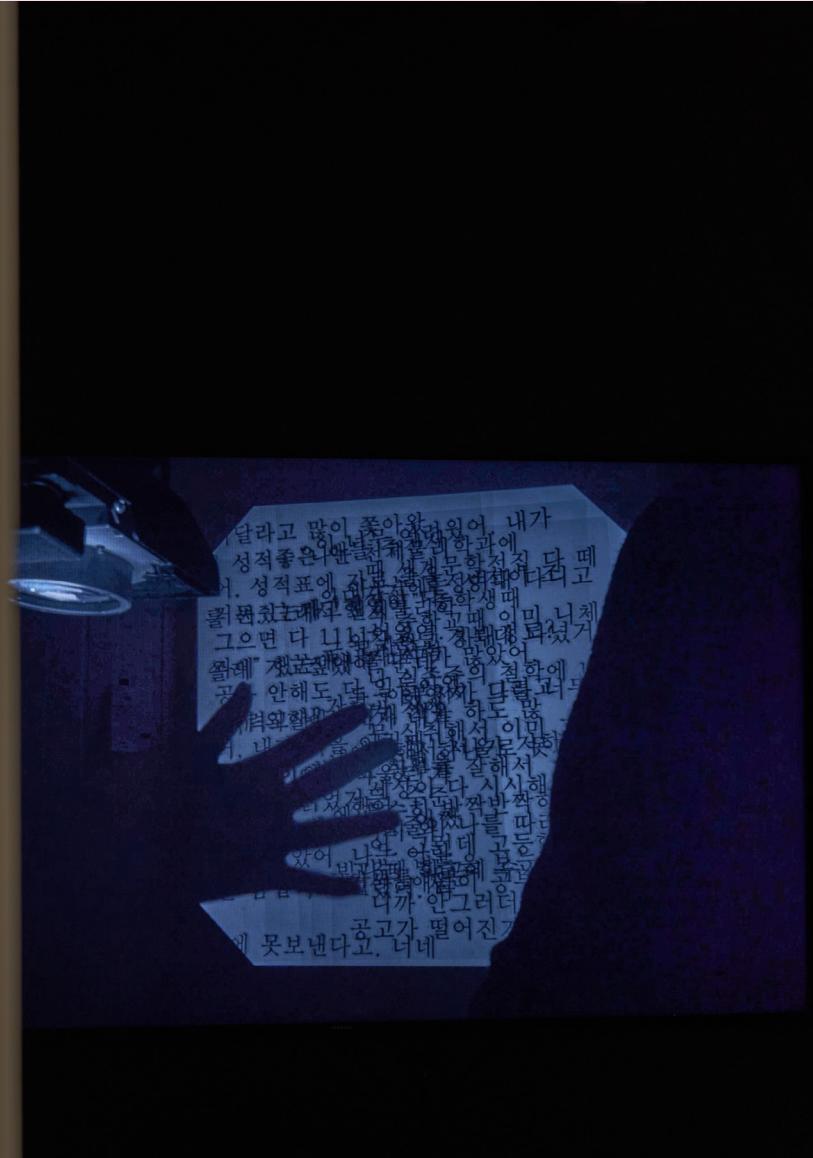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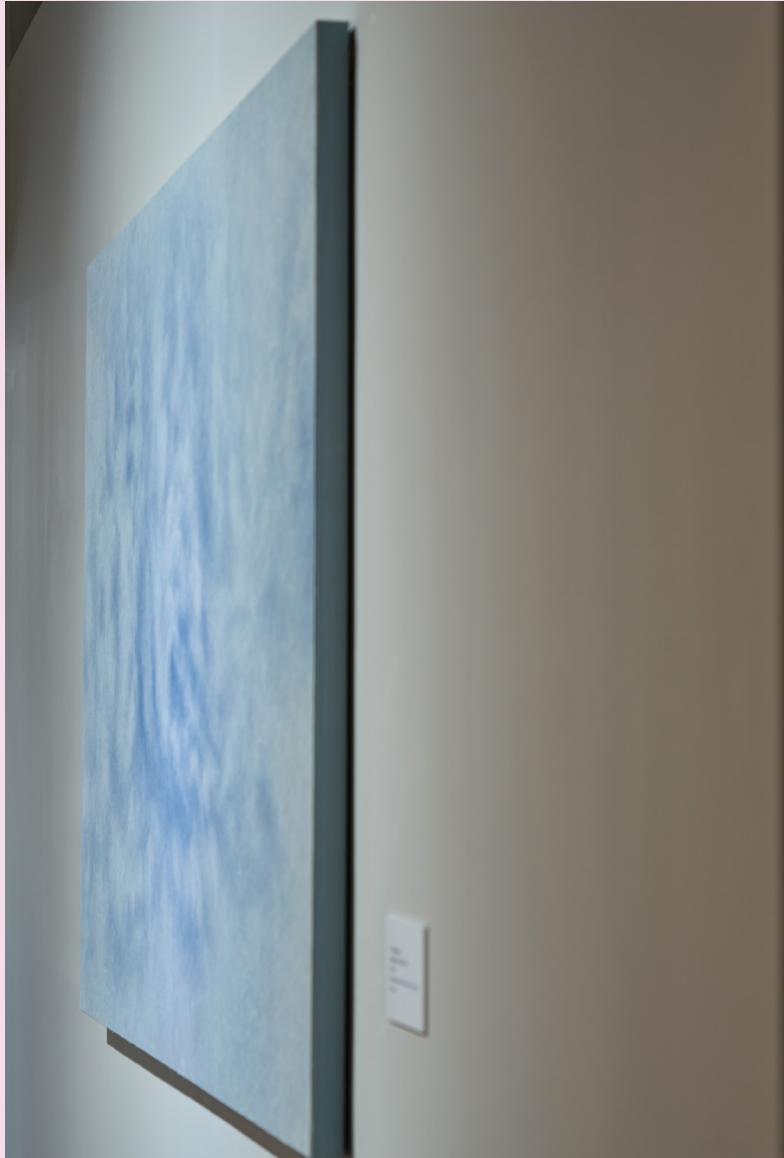
다른 한 편, '그럴듯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지속해서 가져왔다. 주류, 정상성, 믿음 등 이 키워드와 이웃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 모든 것이 흐릿하고 언제쯤 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을 통한 판단'과 '푸펫(puppet)' 두 가지를 엮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의 변명을 대신 해주고 감싸주는 일을 변호(辯護)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왜 무엇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는지 궁금하다. 또 법이라는 렌즈는 누군가가 다른 관점이나 증언을 제시할 때마다 결과나 판단을 다르게

펼쳐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푸펫(꼭두각시 인형)의 경우, 사람들이 모두 그것 앞에 약속한듯이 속아준다는 점이 흥미로워, 관객을 믿는 체하며 게임에 초대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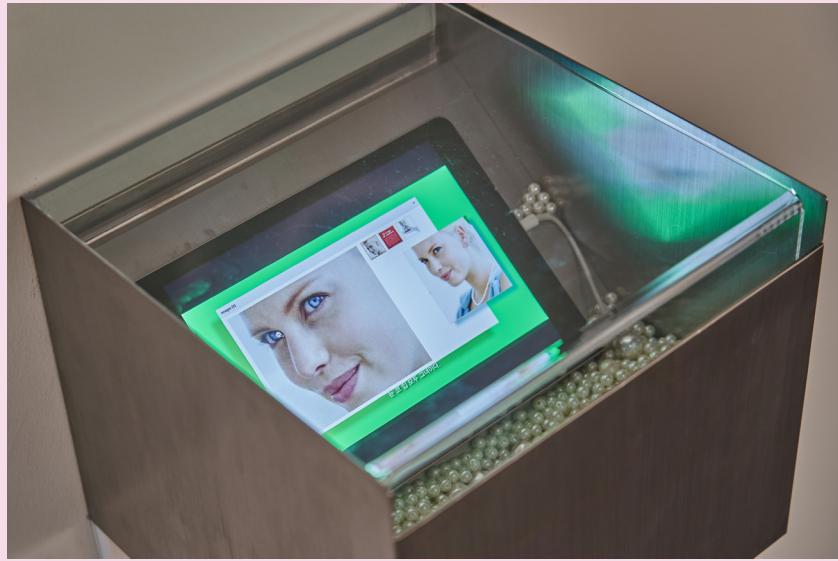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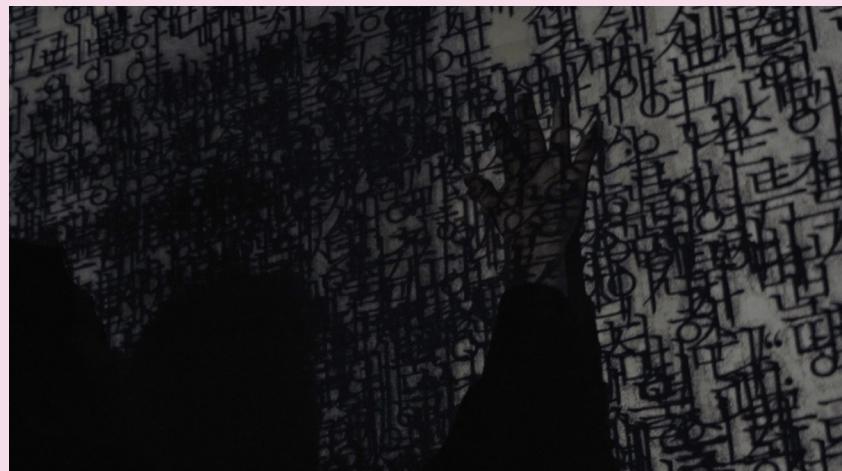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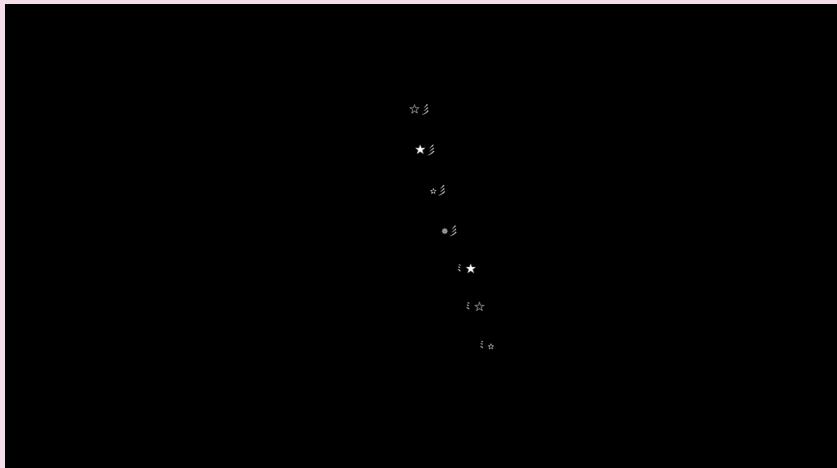
인터뷰: 김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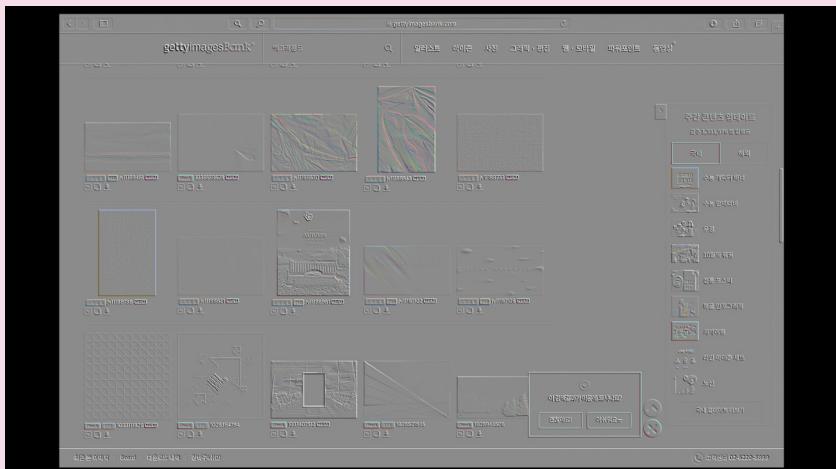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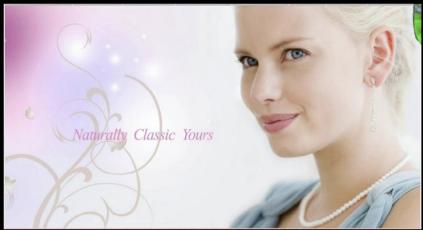












"나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름도 몰라"